

기능성 배추 · 컬러 무 개발 눈길

농촌진흥청, 원예특작원서 현장품평회... 종자회사 육종가 등에 선보여

김장철을 앞두고 기능성분이 풍부한 배추와 색깔이 든 무 등 다양한 배추·무 품종을 개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촌진흥청은 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더위에 잘 지라는 배추 품종과 기능성분(글루코시놀레이드)이 풍부한 배추 품종, 분홍·녹색 무 품종 등에 대한 현장품평회를 열었다.

배추는 덥고 습한 조건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지만, 속익색이 노랗고 더위에 잘 지라는 개체를 선발한 뒤 그 소포자를 배양해 원교20048호를 개발했다. 이 품종은 더위에 강하고 침수 피해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지녔다.

또한 배추는 일반적으로 지상부를 배추김치 형태로 활용하는데, 지상부와 지하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배추 원교20049호도 개발했다.

이 품종은 일반 배추보다 잎갈기가 좁고 길며 뿌리는 무처럼 크게 형성된다. 특히 기능성분이 함유돼 앞에 씹힐 때 강한 지상부는 갖김치의 형태로, 지하부는 석박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김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묘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처럼



농촌진흥청은 기능성분이 풍부한 배추와 무 등의 현장품평회를 가졌다.

가공이 쉬운 막김치에 적합한 품종도 개발해 품평회에서 종자회사의 육종가와 김치공장의 가공담당자에게 선보였다.

무는 껍질과 근육색이 진한 녹색·분홍색으로 생체, 숙체, 무침 등으로 만들었을 때 색깔이 좋은 품종을 개발했다. 단맛은 강하고 매운 맛이 적어 생으로 먹기에도 좋다.

무 새 품종 원교0063호는 껍질과 속색이 진한 녹색이며 당도도 높아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지난해 개발한 적색무 원교10050호와 함께 색깔이 좋은 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무 머리 부분까지 하얗고 뿌

리가 긴 품종, 채종이 쉬운 자원 등을 종자회사와 유통회사 등에 선보여 앞으로 우수한 자원을 공동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품종개발로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 국민 먹거리인 배추와 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식품인 김치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소과 박수형 박사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전통 채소인 배추와 무의 특이 품종 개발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영을 받는 채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북농협, 도교육청과 함께

농협은행전북본부와 전북도교육청은 2일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 일과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주전일중학교 외 도내 33개교 110명의 학생이 참가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지역농협,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농협투자증권사 등 도내 법 농협 금융 계열사 38개 사무소에서 1일 8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

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농협은 사무소 별 멘토를 지정하여 개별 업무에 대한 지도와 함께 평소 학생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 해소 및 향후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농협은행 최용구 전북본부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금융업무를 체험해 보고 종사자들과 단기 멘토십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구체적인 적성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직업체험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우수중기와 투자자 만남의 장

수도권 벤처캐피탈 초청 설명회

전북중기청은 2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공동으로 전북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호남 광역권으로 개최된 행사를 Start-up 전북 2016 창업벤처주간 행사를 계기로 전북 지역 단독으로 개최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촉진과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멘토링부터 투자상담까지 패키지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강점인 식품바이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동 분야에 관심이 높은 KT비즈니스, 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수도권 우수 벤처캐피탈과 지역 엔젤클럽들이 참여했으며, (주) 에스캐랩, (주) 다인스 등 도내 식품 제조업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까지 다양한

분야의 19개 중소벤처기업이 행사에 참여했다. 벤처투자로드쇼는 투자유치 사업설명회(IR), 투자유치 전략상담회 및 VC와의 투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으며,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는 투자심사역이 선발한 6개의 유망 중소기업이 사전에 투자유치컨설팅을 받아 준비한 자료로 벤처캐피탈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전략상담회는 총 13개 중소벤처기업들이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전문가로부터 1:1 투자유치 상담을 받아 성장 단계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았다. 행사 종료 후 VC와 참여기업들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이번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상담이 지속적

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올해 창업·벤처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벤처투자로드쇼가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인기만점

지난해 보다 18.2% 증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 채권에 대비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일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인수실적이 3,98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증가한 수치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은 해운과 조선, 중공업 등에서 촉발된 부실 위험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기업들의 매출채권 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상 경기회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의 전후방 업종인 건설자재, 목

재, 철강, 가구 도매 업종 기업들도 매출채권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보험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신보가 지난 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보험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패러다임 및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부합하는 정책금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보험, 소기업형보험, 창업성장보험, 육선형보험, 보험료 환급형보험 등 다양한 시장친화적인 보험상품을 출시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이 경기 양극화 현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매출 확대보다는 매출채권 회수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연간매출 20억원대 중소기업의 경우 부실채권 3,000만원이 발생하면 현금흐름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은 물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당금액의 추가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거나 내수침체로 매출회전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매출채권보험의 장점은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연쇄도산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보를 통해 구매자의 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보험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제도를 모르는 기업도 많으며 "혹사도산이나 연쇄도산을 막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출채권보험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